

역사와 개인 '시대의 몽타주' ... 신학철 60년 회고전

3월3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실험·민중미술 망라 21일 유흥준 교수 '신학철 예술의 두 세계' 특별강연

신학철 작가(82)는 그동안 독창적인 작품 세계와 의미있는 메시지로 주목을 받아왔다. 실험미술의 지평을 열었으며 사진 몽타주와 콜라주를 매개로 현대 산업사회의 폐해를 날카롭게 묘사했다.

현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신 작가의 작품세계를 가능하게 전시가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30일까지 펼쳐지는 '신학철-시대의 몽타주, 60년 회고전'은 작가의 방대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획이다.

현재 천안에 거주하는 신 작가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광주에서 60년 회고전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며 "예술을 매개로 그림을 그리고 동참했다는 입장에서 영광스럽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압축적으로 화면에 담아내는 한편 시대적 통찰과 정서를 담은 작가의 창작 세계를 다채롭게 들여다볼 수 있다. 60년대 실험미술, 1980년대 민중미술, 21세기 오늘의 시간이 압축적으로 투영돼 있다.

전시는 모두 세 주제로 구성돼 있다. '해체와 재구성의 신체 몽타주', '망각된 역사의 소환', '시대를 위한 기념비' 등이 그것.

먼저 첫 번째 섹션 '해체와 재구성의 신체 몽타주'는 사회 현실을 고발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신 작가는 청년기 한국아방가르드 협회(AG)에서 활동했지만 이후 민중미술로 전환하며 자신만의 예술적 궤적을 남겼다.

AG에서 활동할 시 그는 진부한 미술이 아닌 새로운 현대미술을 추구했다. 억압적 현실에서 탈피

를 모색하는, 시대적 요청을 담은 작품들을 창작했다. '비상탈출-3'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구현한 작품이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고 어딘가로 도망을 치는 인물의 발자국을 클로즈업했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과 긴장이 작품 전반에 흐른다.

신 작가는 70년대부터는 오브제 작업을 펼쳤다. 전구를 비롯해 연탄집게 등을 흰색 실로 감싸 당대 사회를 은유적으로 비판했다. 초현실적 공간에 이질적인 이미지를 배치하거나 서로 다른 추상 이미지를 연계한 작품을 선보였다.

신 작가는 오브제 작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어느 날 집에 있는 화분이 말라 죽었다. 식물을 뽑고 흙을 털었는데 여전히 뿌리가 남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뿌리는 한국의 환경과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며 "이것을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



'한국근현대사6'



광주시립미술관이 '신학철-시대의 몽타주, 60년 회고전'을 오는 3월 30일까지 연다. 신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 내부.



'할미꽃'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 자체를 오브제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를 그림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지만 당시 전위미술을 하던 때라 '오브제'로 사용했고 캔버스 안에 실로 묶었다"며 "신기하게도 사물들이 그때부터 자신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작가는 사물을 이야기를 고스란히 살려 관객에게 전해주었다. 오브제 방식이었고, 작가는

매개자였다.

이후 신학철은 광고, 사진을 매개로 한 포토몽타주 기법에 주목했다. 낯설고 기괴한 상황을 연출해 새로운 감각을 선사한 것. 소설에서 말하는 '낯설게 하기' 기법과 유사하다. 그에게 사진은 단순한 재현이 아닌 재구성하고 선택되는 질료였다. 윌렙스트가 지니는 낯것보다는 가공되고 서사화 된 이미지가 맥락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다.

신 작가는 "사진을 토대로 다양한 생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작품이 풍성해졌다"며 "당시 출간됐던 잡지들 사진을 활용해 의도했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베트남 전쟁의 별거벗은 여자', '메이퀸 투신자살' 등은 당시 이슈가 되는 사건의 사진에 작가적 시각을 투영해 제작한 작품이다.

두 번째 섹션 '망각된 역사의 소환'에서는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 사건을 환기한다. 작가는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변화한 우리 사회의 모습, 거대담론에서 개인적 서사로 전환하는 과정 등을 포착했다. '한국근대사' 연작이 발하는 입체적이면서도

기묘한 감각, 시대적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준다. 마지막 섹션 '시대를 위한 기념비'는 시대의 격랑을 넘어온 도시민들의 삶이 주체다. 아울러 내면에 품은 고향 풍경과 이상향을 담고 있다.

전시 기획을 맡은 홍윤리 학예사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추구하고 모색해왔던 신학철 작가의 작품을 아우르는 전시"라며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진행되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각별하다"고 전했다.

특별 섹션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모티브로 한 '한국근대사-초혼곡', 그림이 법정에서 재판 받은 '모내기' 사건, 현대인의 초상을 웅장한 서사로 표현한 '갑순이와 갑돌이' 등과 관련된 아카이브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신 작가의 작품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특별강연도 마련돼 있다. 유흥준 교수가 '신학철 예술의 두 세계: 한국근대사 시리즈와 농민미술'을 주제로 21일 오후 2시 분관 대강당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송정작은미술관 전시장 모습.

〈광주여성센터 제공〉

'한땀 한땀' 손품들여 만든 '그녀들의 특별한 연대기'

광주여성센터, 수공예품 전시 18~28일 송정작은미술관

광주여성센터는 뜨개, 드로잉, 남독 등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재능을 나누고 여성공동체 정신을 실현해 왔다. 지난 6년간 매년 글쓰기 수업을 개설해 6권의 책을 엮었으며 여성 교육공동체 '다무락'을 운영, 지역 여성들과 함께해 왔다.

광주여성센터(이하 여성센터)가 지역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 낸 작품을 둘러보는 특별전을 마

련했다.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송정작은미술관에서 열리는 '그녀들의 특별한 연대기'가 그것. 오픈식은 18일 오후 5시에 진행하며 지역 여성공동체들의 수공예품과 도서 등 다양한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는 뜨개질 인형부터 가방, 식물 등 소소한 오브제들이 가득하다.

드로잉, 재봉, 남독모임 등 소모임에서 활동한 38명 여성이 만든 작품들이다. 미니 키링이나 조각보, 코스터(컵 받침) 등은 특별하지 않더라도 소담한 아름다움이 배어 있다.

작품에는 기후 위기부터 성평등 의식, 시민사

회의 역할 등에 대한 사유가 담겼다. 한켠에 놓인 '다시 만난 나', '맛있게거나 전하거나', '달콤쌉쌀한 우리 이야기', '나에게 말을 걸다', '나, 여기 있어' 등은 여성센터에서 지난 6년간 진행해 온 글쓰기 수업 결과물이다.

여성센터 지옥현 전시담당은 "2014년 '우리들의 특별한 전시'라는 주제로 시작한 전시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성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함께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는 의미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과일·커피 전파 경로로 아시아 이해

'ACC 아시아 의식주 여행' 5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토마토, 딸기, 파인애플 등 과일의 전파 경로로 아시아를 이해하는 교육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2~5월까지 'ACC 아시아 의식주 여행' 상반기 과정을 진행한다. 화·수요일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1에서 총 12회.

추민승 주무관은 "이번 교육은 아시아와 관련 대중적인 콘텐츠로 접근하는 기획으로 지난 2022년부터 진행돼 왔다"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커피, 과일 등 친근한 소재로 아시아와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전했다.

언급한 대로 ACC는 지난해 석류, 포도, 오렌지 등 과일의 전파 경로를 매개로 서남아시아, 커피를 토대로 동아시아를 조명할 바 있다.

강사들은 책, 도시 여행 경험을 토대로 식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자료 등을 통해 교육 참여자들이 아시아 도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음식문화 관련 책을 펴낸 율덕노 작가는 '아시아 과일 로드'를 진행한다. '과일이 읽는 세계'를 펴낸 바 있는 신 작가는 동남아시아 과일과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아시아 각국의 과일 문화와 역사를 들려준다.

윤오순 박사는 '아시아 커피 로드'를 주제로 서아시아 커피의 기원과 역사를 풀어낸다. 사우디



지난해 진행된 '아시아 커피 로드' 장면. (ACC 제공)

아라비아 커피 산업을 비롯해 예멘의 생두와 원두, 튀르키예식 커피 추출 도구의 특성을 전달하며 직접 커피를 추출하는 등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이강현 전당장은 "아시아 의식주 여행"은 아시아의 친근한 소재를 모티브로 많은 시민들과 아시아의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과일, 커피 등이 아시아 문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좌별로 ACC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21일까지 공개모집

'세계문학'의 가능성으로서 '오월문학' 워크숍

오월문예연구소, 20일 전일빌딩245

지난해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소설 '소년이 온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월문학'의 '세계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조명하는 워크숍이 열린다.

오월문예연구소(대표 나종영)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일빌딩 245(광주시민단체지원센터 내 NGO 재단 자료실)에서 워크숍을 연다.

"세계문학"의 가능성으로서 "오월문학"을 주제

로 펼쳐지는 이번 워크숍은 80년 이후 한국문학의 새로운 한 물줄기를 형성해 온 '오월문학'을 다채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평론가인 김형중 조선훈 교수가 "역사의 역사-루카치, 제임스, 임철우, 한강 그리고 오월 소설"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시인 이승철 문학사 연구가가 "오월문학총서"를 통해서 본 오월문학의 흐름과 전망"을, 평론가인 정민구 전남대 교수가 "시는 여전히 물음이 될 수 있을까"를, 김형중 평론가가 "절대 신화 너머의



김형중 평론가

자리, 포스트-광주"를 발표한다.

발표가 끝나면 참가자들의 질문과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조선훈 오월문예연구소장은 "이번 워크숍은 오월문학의 가능성과 향후 미래를 참가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라며 "광주가 '책과 문화의 도시 광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운영문·전당·사진)이 운영 전반에 자문, 심의 등을 진행할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을 오는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음악 분야에서 5명, 무용 2명을 비롯해 국악(3명), 연극(2명), 문화행정(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선발된 자문위원은 전당 관리운영 및 공연장 사용허가 등 전문적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을 자문·심의회가 된다. 이외 공연의 영리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시립예술단별 운영위원회 회부사항, 기금 운용 및 심의사항 등을 검토한다.

모집 분야별로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자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 분야를 전공해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전문가이거나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기

관에 3년 이상 재직된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 (문화행정분야는 관련 공공기관 3년 이상 재직 경력 필수)

전당 방문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3월 11일 합격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자문위원 모집은 '광주시 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및 '광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 진행된다.

운영문 전당장은 "공연예술과 관련된 학식과 역량에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거쳐 전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